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의 복식에 관한 연구

김 현 · 유송옥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Costume of Priest depicted in the Old Testament

Hyun Kim · Song-ok Ryu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

(2001. 6. 13 투고)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the evident and visual structure of costume of priest with symbol through the Old Testament.

Based on corroborative the Old Testament, this thesis analyzes the costume of priest. This compares Aaron with his sons. This compares the two onyx stones on the shoulder pieces with four rows of precious stones on the breastpiece. This compares the robe with the woven tunic.

This era falls on about from the 15th century before Christ.

The crafts men whom God have endowed with skill make the vestments.

Due to the christian religion, the body was entirely concealed. The costume of priest were not only used as dignity but also grandeur.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the colour of the costume has signified not only the colour sense but also important symbolic meanings. The priest wore, over undergarments, a woven tunic, and he wore over the tunic, a robe, an ephod, a breastpiece, a sash, using a turban as head covering. Gold, and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and fine linen are used. Aaron and his sons must wear them whenever they enter the Tent of Meeting or approach the altar to minister in the Holy Place, so that they will not incur guilt and die.

Key Words : the Old Testament(구약 성서), priest(제사장), costume(복식), breastpiece(흉패), ephod(에봇), symbol(상징)

I. 서론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의 복식을 성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복식의 형태와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 보려고 한다. 히브리인이 일찌기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유일신관을 확립하고, 고대 다신교의 물결 속에서도 고고히 그 신앙을 견지한 것은 인류에게 끼친 큰 공헌이었다. 그 히브리인의 종교적 경전이 곧 구약 성서이다.¹⁾

제사장은 바른 예배를 주관하고, 종교적 및 도덕적 교훈을 주고, 때로는 재판관의 일까지 감당하였다.

대제사장은 예복으로 바지 위에 속옷과 겹옷, 예복을 입고 띠를 매고 흉패를 가슴에 달고 관을 썼으며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정금패를 달았다.

일반 제사장은 고의, 속옷, 관, 띠를 예복으로 착용하였다.²⁾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않으며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³⁾

아론에게는 대제사장복을 입혔으며,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옷을 입혔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첫째, 구약 성서 중에서 제사장의 복식이 가장 잘 보여지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복식을 고찰하여 제사장의 복식이 복식사에서 자리하고 있는 사상적, 복식사적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제사장 복식의 명칭과 형태를 체계화하며, 제사장의 복식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형태, 색채, 세부 장식, 역할, 착용법 등에 대해서 고찰하여 제사장 복식의 전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위의 문헌을 토대로 하여 언어진 제사장 복식에 대한 객관적 문헌, 그림자료를 분석하여 제사장 복식에 나타난 특징을 밝히고, 착용법을 알며, 그의 상징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 자료를 통하여 제사장 복식의 종류와 그에 따른 형태, 색채, 세부 장식, 역할, 착용법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제사장 복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될 것이다.

제사장 복식의 이론적 고찰에 있어서의 연구 범위는 구약 성서의 제사장의 복식에 관한 기록 중에서 가장 잘 표현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의 복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출애굽 연대에 대한 학설 중 초기설(B.C. 1445 년경)을 취한다면, 40 년 광야생활 동안, 즉 B.C. 1445 년부터 B.C. 1405 년까지의 출애굽 광야생활 40 년 동안의 제사장의 복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복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제사장 복식에 대한 문헌 자료로 출애굽기를 포함하는 구약 성서를 토대로 문헌 자료를 탐색하여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 복식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형태, 색채, 세부 장식, 역할, 착용법 등을 고찰하여 제사장 복식의 특징적 면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제사장 복식을 구성하고 있는 상징적 특징들을 하나님의 은혜, 전 인류의 죄와 믿음, 직분과 권위, 성결한 중보적 직무, 권능과 성실, 단정과 경건으로 분류하고 고찰하여 제사장 복식의 상징적인 의미를 귀납법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제사장 복식의 종류에 따른 형태, 색채, 세부 장식, 역할, 착용법 등을 고찰하여 제사장 복식의 특징적 면모를 분석하고 제사장 복식을 구성하고 있는 상징적 특징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제사장 복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움을 주하고자 한다.

II. 문화적 배경과 제사장의 역할

출애굽 연대에 대한 학설 중 초기설(B.C. 1445 년경)을 취한다면, 출애굽기는 40 년 광야생활 중, 즉 B.C. 1445 년부터 B.C. 1405 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가 죽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편집했을 것이다. 출애굽기는 야곱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B.C. 1875 년경)로부터 431 년 후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B.C. 1445 년경)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

을 맺은 후 갖게 된 성막 제사는 제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기점을 이루었다. 예전 절차는 이방인으로 인해 오염된 제사 형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해 주었다. 이 때부터 노예생활 속에서 무질서했던 여호와를 향한 독특한 제사 형태가 쇠신되어 가는 구체적 발전 단계로 접어든 것이었다.⁵⁾

이러한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는 그들의 3대 명절에 집중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형태이면서도 또 한편 성막 제사의 중심은 희생의 제사였다.⁶⁾

제사장의 복식을 착용하도록 위임된 사람들, 즉 아론의 반차(班次)를 따르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세 종류의 용어들이 있다. 그것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큰 대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은 아론 족속의 지체들로서 오직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숫자는 아론 족속의 규모에 따라 변했다. 그들의 직무는 거룩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처음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의 아들이 그 직분을 계승했으며, 대제사장 직분은 오직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취할 수 있었다.

큰대제사장 직분은 오직 단 한 사람밖에 취할 수가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⁷⁾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른 것은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함이었다.⁸⁾

제사장은 단지 성소에서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기도 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서⁹⁾ 이스라엘을 다스렸다.¹⁰⁾ 사무엘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으나,¹¹⁾ 그들은 판결을 굽게 하였다.¹²⁾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다스릴 왕¹³⁾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그들이 다스리는 자로서 왕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도 사제와 행정적 직무, 혹은 왕의 직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¹⁴⁾

제사장은 율법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의무가 있다.¹⁵⁾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순종해야만 했으며,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다.

Ⅲ. 제사장의 복식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였다.

제사장은 제일 밑에 고의, 반포 속옷, 즉 수 놓은 옷을 입고 그 위에는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어깨는 에봇으로 덮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는 관을 썼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거룩한 복식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었다.¹⁶⁾

제사장들이 제사장복을 입는 엄격한 법칙이 있었다. 1. 제사장만 입어야 한다. 레위인은 제사장복을 입을 수 없다. 2.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만 입어야 한다.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벗어두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나가야 한다. 3. 제사장복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설사 성전 안에서 잠자러 갈 때에도 벗어야 한다. 4. 하나님이 입으라고 명령한 네 가지 옷만 입어야 한다. 즉 세마포 긴 옷, 팬티, 모자 그리고 대이 넷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¹⁷⁾

마음에 지혜있는 자,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제사장의 복식을 만들라고 했다.

재료로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이다.¹⁸⁾

일반 제사장의 복식은 단순히 4품으로 되어 있는데, 고의, 속옷, 띠 그리고 관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복식은 이상 4품에다 또 4품을 더하여, 흉패, 에봇, 겉옷, 그리고 관에 붙인 금패이다. 에봇과 대의 재료는 네 가지 색실로 짠 것 등 넷으로 구성되고 표현되었다. 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성,

동서남북의 사방, 그리고 정직, 완전 등의 표시로서 성막 및 제사장의 복식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 표현이다.¹⁹⁾

대제사장의 복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며, 제사장의 복식도 믿는 자의 성품을 상징한다.

1. 우림(Urim)과 둠뫼(Thummim)이 들어 있는 흉패(breastpiece)

하나님은 모세에게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 짜는 법대로 공교히 짜서 판결 흉패를 만들고 우림과 둠뫼를 그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항상 그 가슴에 있게 하라고 하였다.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 둠뫼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일종의 제비 뽑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 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1) 흉패(breastpiece)

흉패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고, 사각형이다. 그 치수는 장광이 한 뼘씩이며,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노끈처럼 땀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땀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땀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대 윗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대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 또한 우림과 둠뫼를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한다.²⁰⁾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열 두 보석이 물려있으며,²¹⁾ 그것은 에봇과 분리할 수 없다.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²²⁾고 했다. 그 흉패가 붙은 장소는 대제사장의 가슴이며, 신비스러운 우림과 둠뫼가 그 속에 있다.

흉패의 목적과 설계는 그 속에 물린 보석들을 달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그것들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보석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의 이름을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긴다. 이 사실이 예시해 주는 것은 큰 대제사장²³⁾인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산 백성들을 그의 가슴에 걸머지고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다. 흉패 끈은 정금으로 두 사슬을 꼬아 만든다. 고리로 된이라는 말에 꼬았다는 말은 기술과 견고한 조화를 나타내며 또한 흉패가 견대에 있는 보석들과 분리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대제사장의 어깨가 흉패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그리고 흉패를 움직여 주는 심장의 고동이 있을 때마다 고리로 된 사슬에 의하여 견대에 전달된다. 여기에서 중대성은 여호와의 전능한 팔이 부드러운 그의 사랑의 가슴에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한다. 그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일을 함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그는 그들을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을 넘치는 기쁨으로 그의 영광의 임존 앞에 흠 없이 나타내게 한다.

보석은 열 두 개로서 열 두 지파에 하나씩 네 줄로 세 개씩 배열하였다. 첫 줄은 홍보석(ruby) 황옥(topaz) 녹주옥(beryl)이고, 둘째 줄은 석류석(turquoise) 남보석(sapphire) 홍마노(emerald)이며, 셋째 줄은 호박(jacinth) 백마노(agate) 자수정(amethyst)이고, 넷째 줄은 녹보석(chrysolite) 호마노(onyx) 벽옥(jasper)으로 다 금테에 물린다.

<표 1>은 흉패의 열 두 보석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흉패 위의 이름은 지파 순서이다. 지파의 순서에는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Sinai)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동할 때 주어졌다.²⁴⁾

흉패는 에봇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연결시켰다. 에봇은 흉패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흉패는 에봇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표 1> 홍패의 열 두 보석

첫째 줄	홍보석(ruby) 유다	황옥(topaz) 잇사갈	녹주옥(beryl) 스블론	성막 동편진
둘째 줄	석류석(turquoise) 르우벤	남보석(shapphire) 시므온	홍마노(diamond) 갓	성막 남편진
셋째 줄	호박(jacinth) 에브라임	백마노(agate) 므낫세	자수정(amethyst) 베나민	성막 서편진
넷째 줄	녹보석(chrysolite) 단	호마노(onyx) 아셀	벽옥(jasper) 납달리	성막 북편진

옷이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그것들이 새겨진 보석 위에서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접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명칭은 판결 홍패라고 불렀다.²⁵⁾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홍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²⁶⁾

끈에 대해서는 “청색 끈으로 홍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홍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²⁷⁾고 했다. 청색은 천상적 색채이며 그의 천상적 제사장직이 계속되는 한 홍패에 달린 성도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는 근심 걱정이 없으며 항상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2) 우림과 둠뭇

이 두 가지가 모두 복수이기는 하지만 존칭 복수로서 어떤 사물의 중대성이나 위엄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 같다. 우림은 빛이라는 말이며, 둠뭇은 온전이라는 뜻이다. 구약 성경에 일곱 번이나 이 말이 나와 있다. 출 28 : 30, 레 8 : 8, 스 2 : 63, 느 7 : 65에서는 우림과 둠뭇이 나타나고 있으나 민 27 : 21, 삼상 28 : 6에는 우림만 언급되어 있다.

위치에 대해서는 “너는 우림과 둠뭇을 판결 홍패 안에 넣어”²⁸⁾ “두점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²⁹⁾라고 하였다. 홍패를 만든 세마포 천은 자루의 형태로 만들며 그 안에 우림과 둠뭇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다. 그것들은 이스

라엘의 열 두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보석들 아래 있고 아론의 어깨에 있는 호마노 보석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용도로는 우림과 둠뭇은 여호와와의 판결을 알아내는 제비로 사용된 두 개의 보석인 것 같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걱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³⁰⁾고 했다. 우림과 둠뭇 중에서 그 하나를 꺼내어 어느 것이 여호와와의 뜻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홍패에 달린 자루에 우림과 둠뭇을 가지고 여호와와의 결정을 보여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³¹⁾

빛과 온전은 제사장의 중심이 된다.

백성들이 어느 경로를 따라야 할지 의심스러워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사장에게 와서 물어 그 응답을 얻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³²⁾라고 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회중들을 판결할 뿐만 아니라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전달했다. 그것은 진지하고 준엄한 직책이었다.³³⁾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 의와 은혜가 만나며, 그 균형이 온전히 유지되었다.

2. 에봇(ephod)

이 에봇은 거룩한 옷이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는다. 에봇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한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공교

히 붙여 잔다.

호마노 두 개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인을 새김같이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인다.

금으로 테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땅고 그 땅은 사슬을 그 테에 단다.³⁴⁾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음으로써 세상의 신적인 질서를 반영하고 특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복식은 세상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었다는 권한의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³⁵⁾ 그리고 이 에봇에는 하나님이 자기 대리인 제사장들에게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우림과 둠뭇을 넣은 주머니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에봇의 구조를 땅 위에 기둥들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우주의 구조처럼 생각한다.³⁶⁾ 즉 에봇은 땅을 상기시키고 뿔뿔은 기둥을 연상한 것이다. 헐몬산 위에 이슬이 내리듯 대제사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고 그 분을 통하여 열 두 지파에 내린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³⁷⁾

주사위(우림과 둠뭇)는 사람이 던지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믿었다.³⁸⁾

이와같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즉 하나님이 인류(열 두 지파)를 통하여 활동하는 것이다.³⁹⁾

에봇에는 흉패가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흉패 위에는 보석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영화로운 겹옷 전부를 벗지 않고는 보석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거할 수 없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자신의 제사장 의복 전부를 벗지 않고서는 자기 가슴에서 이름 하나라도 제거할 수 없었듯이 예수도 자기 영광을 벗지 않고서는 믿는 자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 믿는 자는 예수에게 결코 잊혀지거나 저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3. 에봇 받침 겹옷(robe)

에봇 받침 겹옷은 대제사장만 특별히 입을 수 있는 예복 중 첫 번째 것이다.

겹옷은 사람의 직책에 맞도록 사람을 위엄있게 만들어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론도 직분에 걸맞게 겹옷을 입었고, 그의 지위는 존경을 요구했다.

에봇 받침 겹옷의 옷감은 무엇인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성서에서 강조된 것은 옷감이라기보다 색깔이다. 에봇 받침 겹옷은 전부 청색으로 한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구성한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한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며,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⁴⁰⁾

겹옷은 소매가 없으며,⁴¹⁾ 법의(chape, 法衣)의 한 종류로 장단지까지 내려온다. 둥근 케이프(cape)처럼 사용했다.

4. 반포 속옷(woven tunic)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⁴²⁾

반포 속옷은 몸에 꼭 맞고 주름이 없으며, 세마포로 된 긴 옷이다.⁴³⁾ 바느질을 하지 않으며 소매가 아주 좁고 꼭 맞으며 그것을 에봇 받침 겹옷 밑에 입으며, 고대의 튜닉과 거의 같은 것이다. 몸에 꼭 맞아 얼른 보면 알몸같은 것은 깨끗한 알몸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갈 때 알몸으로 가야 했다.⁴⁴⁾ 즉 알몸의 제사장은 흠없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창조 상태인 자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이다. 즉 제사장은 인류를 축복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하나님에게 빌기 위하여 옷을 입게 되고 장식을 하게 하면서 오직 제사장의 반포 속옷만은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라”⁴⁵⁾고 한 것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⁴⁶⁾

믿는 자는 예수의 의(義)로 옷 입었다.

5. 관(turban)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한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한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가 받게 된다. 관은 가는 베실로 만든다. 관은 아론의 아들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여호와에게 행하게 한다.⁴⁷⁾

관은 보자기 같은 것으로 “짜진 것”이라는 뜻이나⁴⁸⁾ 그 모양은 분명히 알 수 없다. 요세프스는 “그것은 원추형의 모자가 아니라 일종의 관으로서 두꺼운 아마포로 넓게 만들어 졌다.”고 했다.⁴⁹⁾ 그것은 일종의 터어번 같은 것이며 색은 회다.⁵⁰⁾ 죄로 인해 관을 벗게 되고 죄과가 사해졌을 때 정한 관이 회복된다. 거룩한 곳에 참여하려면 세마포관 곧 정결한 관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⁵¹⁾

대제사장 자신이 거룩해야 하는데 이것은 또한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전 백성이 모두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6. 대(sash)

대는 제사장의 복식 중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아론은 물론 몸을 씻고, 속옷을 입고 대를 띠고, 겹옷을 입고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대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뿔을 넣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위 전

면에 금패를 붙인다.⁵²⁾ 에봇 위에 매는 대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곧 베실로 에봇에 공고히 붙여 짠다.⁵³⁾

믿는 자는 예수에게 꼭 묶여 있음으로써 예수의 특성이 믿는 자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또한 대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봉사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⁵⁴⁾

7. 고의(袴衣, undergarment)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입는 옷은 고의이다.

이는 물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지만 대제사장도 제일 먼저 입는 옷은 고의였다.

고의는 제사장들의 하체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베(세마포, linen)로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한다. 속살이 보이면 안 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않으며,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⁵⁵⁾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정속해야 하며 반드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

IV. 제사장 복식의 상징적 의미

제사장의 복식은 아론의 위임식의 일부였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곧 베실이었는데, 금은 신성과 신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 내부의 재료였다.⁵⁶⁾

이 모든 복장의 품질은 그 옷감이나 재료나 기술에 있어서 최고였다. 세마포, 정금, 보석, 값진 향유, 공고한 기술 등 이 모두는 지혜로운 마음에 의해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에봇, 대, 어깨 보석, 흉패, 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사실과 또한 에봇과 대의

색깔들이 흉패와 동일하다.⁵⁷⁾

<그림 1> 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의 복식을 표현한 그림이다.⁵⁸⁾ 소매가 없도록 본 연구자가 모사하였다.

1. 하나님의 은혜

1) 공의와 사랑

판결 흉패는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반드시 네모 반듯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공의를 상징한다. 뇌물이나 인정에 이끌려서는 안된다.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도 안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판결해야 한다. 열 두 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안았다. 이것은 사랑을 상징한다.⁵⁹⁾ 흉패에는 (1) 장식, (2) 결정, (3) 주머니 등으로 이해된다. 흉패에는 열 두 보석을 붙였고, 열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새겨졌다.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가로 세 개씩 세로 네 줄로 배치했다. 위에서 좌로 배치된 것으로 본다.⁶⁰⁾ 이 보석의 배치는 하나님의 질서, 통일성,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리를 정하였으며,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보석은 ①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대신 하도록 택함을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나타낸다. ② 그것들의 우수성을 나타낸다. ③ 여호와의 온전한 지식이 그를 따르는 자들과 관여할 때는 개별적인 지파의 이름들을 익히 알았다.⁶¹⁾

열 두 지파와 열 두 아들은 두 곳에 차이가 있다. 열 두 아들에서 요셉과 레위를 빼다. 그리고 레위는 아주 빠진다.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 간다. 요셉은 두 몫을 받았다. 요셉이라는 말 자체가 '그가 더 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셉 지파만 두 몫을 차지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렇게 축복하였고, 모세도 두 지파의 축복을 하였다.⁶²⁾

흉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보자됨, 그의 의를 상징한다. 판결 흉패의 크기는 한 뼘 길이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제사장의 가슴을 전부 덮었으며, 가슴은 애정과 사랑을 상징한다.

흉패에 붙박아진 이 열 두 보석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제사장의 복식
(『제사장 의복』, 표지, 겹옷의 소매가 없도록 본 연구자가 모사함)

그런데 두 어깨 보석들 위에는 오른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왼쪽에는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이 새겨졌다.

이 이름들은 사람과 순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들이 있다. 흉패에 없는 레위와 요셉의 이름은 어깨 보석 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반면, 흉패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은 어깨 보석 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어깨 보석은 출생 순서이고, 흉패 위의 이름은 지파 순서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리를 정하였으며,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상징한다.⁶³⁾

2) 하나님의 뜻

우림과 둠뫼의 의의에 관해서는 (1)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는 것, (2) 이스라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의 해석이 있다. 우림과 둠뫼는 제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였고, 그러므로 "판결 흉패" 라고 했다.⁶⁴⁾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

밌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였다. 철저한 신본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림과 둠밌으로 지시하였다.⁶⁵⁾ 우림과 둠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떤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입증된 것은 삶 가운데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것이다.

2. 전 인류의 죄와 믿음

에봇은 대제사장이 네 번째 입는 옷으로 에봇 받침 겹옷 위에 입는다.

에봇은 조끼와 같은 것으로 호마노 두 개에 이스라엘 열 두 아들의 이름을 새겨 에봇의 두 견대에 붙인 것은 전 인류의 죄를 진 그림자다.

에봇은 "예복 또는 위에 덮는 것"을 뜻하며, 조끼와 같았다. 여기에서는 금실이 첨가되어 훨씬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인다. 금실은 믿음을 상징한다. 연장자 6 명의 이름을 한 보석에, 연소자 6 명의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겼고, 전자는 오른편 어깨에, 후자는 왼편 어깨에 붙였다. 열 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두 보석을 에봇의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견대에 붙였다. 어깨는 메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책임과 보호와 중보를 상징한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⁶⁶⁾

3. 직분과 권위

대제사장이 세 번째 입어야 할 옷은 에봇을 입기 위한 받침이다. 이는 에봇 속에 입었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겹옷"이라 하였다. 일반인이 입는 옷에 비해 겹옷은 길어 장단지까지 내려오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었다.

겹옷은 직분과 권위의 상징으로 착용된다.

전부 청색으로 된 겹옷은 여러 색과 모양의 흉패와 대조가 된다.

청색은 은혜를 상징한다. 청색이 성막에 풍성했

던 것처럼 은혜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어디서나 풍성하게 볼 수 있다.⁶⁷⁾

청색은 하늘색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 직무를 상징한다.

청색은 생명을 의미한다. 대제사장의 최고 의무는 생명 구원이다. 대제사장의 최대 목표는 생명이다.

겹옷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았고, 금방울을 만들어 석류와 번갈아 배열시켰다. 금방울 소리는 믿음, 기쁨과 계시의 소리를 상징한다.

아론이 성소에 출입할 때는 예복을 입고,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였다. 그것을 어길 때는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금방울의 상징적 뜻에 대해서는 1) 왕인 여호와와의 문을 두드리는 신호, 2) 존경의 인사, 3) 음악적 찬양의 표시, 4) 말씀의 기념, 5) 말씀의 선포, 6) 율법을 지킬 것을 깨우치며, 경계하는 신호 등을 상징한다.

금방울 소리는 소망과, 믿음의 소리를 상징한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방울 소리를 내면서 다녔다.

석류는 한 개의 과실에 많은 알이 있어 풍요한 생명의 상징으로 선호되었다. 석류를 단 이유는 1) 아름다움, 2) 향기, 3) 성도들의 모습, 4) 충만함, 5) 피말숨을 들 수 있다. 씨를 피가 둘러 싸고 있는 열매가 석류 열매이다. 씨는 말씀이고 대제사장은 피말숨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 중에 말씀은 피말숨이다.⁶⁸⁾

대제사장복을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은 아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다.

아론은 이 옷을 벗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민수기 미드라쉬는 아론의 죽음을 이렇게 전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어느날 모세를 불러서 말했다.

"아론은 이 산 위에서 죽을 것이다. 아론에게 이 말을 놀라지 않게 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대제사장복을 입고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랐다. 모세가 엘르아살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

왔다. 엘르아살이 아론의 옷을 입고 내려오고 있었다. 아론은 대제사장복을 벗자마자 세상을 떠났다.⁶⁹⁾

하나님의 의(義)는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결코 자력으로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흰 속옷을 청색의 은혜로 덮어 주었다. 율법을 은혜로 덮은 것이다.

4. 성결한 증보적 직무

대제사장의 속옷은 성결의 옷이다. 대제사장이 고의 위에 입는 가장 기본적인 옷이다. 반포 속옷은 가는 베실로 짜는데 가는 베실은 성결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성결의 옷이다. 성결을 잃은 하나님의 종은 무력해진다. 제사장은 성결 그 자체가 재산이며, 성결 그 자체가 능력이고, 성결 그 자체가 가장 좋은 메세지이다. 성도들은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고 제사장이 행하는 대로 배운다.⁷⁰⁾

관 위 전면에 청색 끈으로 매어 있는 때는 순금으로 만든 패로서 “빛난다”는 뜻을 상징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구를 새겨 대제사장의 관의 전면에 붙였다. 대제사장의 복식의 정상적인 부분이다. 대제사장은 여호와에게 늘 가까이 함으로 특별히 여호와에게 성결히 바친바 되었다. 이 성결이 없이는 성결한 하나님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대제사장의 가장 우선은 성결이다.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는 것은 아론의 마에 있던 패의 목적 또는 사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고, 그들의 바친 제물에도 부정하여 죄건이 있을 경우 “여호와께 성결”하게 된 아론을 통해 그들과 그들의 제물이 성결한 것이 되어 하나님이 받게 된다.⁷¹⁾

믿음의 백성들은 의(義)로 옷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義)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묶여 있으며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5. 권능과 성실

대는 고귀한 색깔로 수 놓은 정교한 대이다.⁷²⁾

대는 공의와 성실을 상징하고,⁷³⁾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자의 힘의 표시로 나타난다.⁷⁴⁾

여호와가 세계를 견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고 통치하며 스스로 권위를 입고 능력을 입으며 떠났다. 힘으로 산을 세우며 권능으로 대를 띤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나라의 권력을 입는다.⁷⁵⁾

네 가지 색깔을 근거로 한 대는 믿음, 생명, 왕권, 고난을 상징한다. 대는 봉사를 상징하고, 봉사를 위한 힘을 상징하며, 준비를 갖춘 자세를 상징한다.⁷⁶⁾ 그 아름다움과 상징은 영광스러운 색깔 속에 숨겨져 있으며,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끈 베실이다. 청색과 홍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자색이 그 둘을 조화시킨다.

<표 2> 제사장 복식의 상징적 의미

상징적 의미		제사장 복식의 종류	
하나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에봇 받침 겹옷(robe)	판결흉패(breastpiece)
	하나님의 뜻		우림(Urim)과 둠땀(Thummim)
전 인류의 죄와 믿음		에봇(ephod)	
직분과 권위		에봇 받침 겹옷(robe)	
성결한 증보적 직무		반포 속옷(woven tunic)	
		관(turban)	
권능과 성실		대(sash)	
단정과 경건		고의(undergarment)	

6. 단정과 경건

고의는 제사장의 성례 집행 때의 단정과 경건을 위한 것이다. 하체가 드러남을 막기 위해 단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였다. 속살이 보이면 안된다. 속살의 첫 인상은 성(性)적인 것이다.⁷⁷⁾

대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제사직을 수행할 때는 고의를 입어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했고, 그렇지 못할 때는 거룩한 곳을 거룩하지 않게 했으므로 죽임을 당한다.⁷⁸⁾ 예배와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하고 규정한 방법에 따라서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맞게 된다.

V. 결 론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 복식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제사장 복식의 역할, 형태, 색채, 재료 그리고 세부 장식 등을 고찰하여 제사장 복식의 특징적 면모를 분석하고, 제사장 복식을 통하여 나타난 상징적인 의미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제사장의 복식은 출애굽 연대에 대한 확실증 초기설(B.C. 1445 년경)을 취한다면, 40 년 광야생활 동안, 즉 B.C. 1445 년부터 B.C. 1405 년까지의 출애굽 광야생활 40 년 동안을 근거로 한다.

둘째,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사장 복식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제사장 복식의 역할, 형태, 색채, 재료 그리고 세부 장식 등을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판결 흉패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짜는 법대로 짜서 만들고, 그 치수는 장광이 한뼘씩 네모 반듯하며, 두겹으로 되어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 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우림과 둠땀이 들어 있고, 판결 흉패는 에봇과 연결되어 있다.

2.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짓는다. 호마노 두 개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견대 둘을 단다. 대제사장이 입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인류를 통하여 활

동하게 한다.

3. 에봇 받침 겹옷은 대제사장만 특별히 입을 수 있었고 직책에 맞도록 위엄있게 해주었다. 색은 전부 청색이고 그 옷 가장자리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단다. 겹옷은 소매가 없으며 장단지까지 내려온다.

4. 반포 속옷은 몸에 꼭 맞고 주름이 없으며, 세마포로 된 긴 옷이다.

5. 관은 두꺼운 아마포로 넓게 만들어졌으며,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관전면에 있게 한다.

6. 대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짠다.

7. 고의는 제사장들의 하체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베로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한다.

셋째, 제사장 복식의 착용법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예복으로 고의 위에 속옷과 겹옷, 에봇을 입고 띠를 매고 흉패를 가슴에 달고 관을 쓰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정금패를 달았다. 흉패에는 세 개씩 한 조를 이루어 네 줄로 보석을 붙박았는데,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 유다, 잇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의 순서로 하나씩 새겨졌다.

넷째, 제사장 복식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은혜

판결 흉패는 장광이 한 뼘씩 두겹으로 반드시 네모 반듯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공의를 상징한다. 열 두 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안았다. 이것은 사랑을 상징한다. 흉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보자됨, 그의 의를 상징한다. 어깨 보석은 출생 순서이고, 흉패 위의 이름은 지파 순서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리를 정하였으며,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2. 전 인류의 죄와 믿음

에봇은 금실이 첨가되었는데 금실은 믿음을 상징

한다. 열 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두 보석은 예복의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견대에 붙였다. 그것은 책임과 보호와 중보를 상징한다.

3. 직분과 권위

겉옷은 직분과 권위의 상징으로 착용된다. 겉옷의 청색은 은혜를 상징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적 직무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한다.

4. 성결한 증보적 직무

반포 속옷은 가는 베실로 짜는데 가는 베실은 성결을 상징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구를 새겨 대제사장의 관의 전면에 붙였다. 관 위 전면에 청색 끈으로 매어있는 때는 순금으로 만든 패로서 "빛난다"는 뜻을 상징한다.

5. 권능과 성실

대는 공의와 성실을 상징하고 네가지 색깔을 근거로 믿음, 생명, 왕권, 고난을 상징한다. 또한 봉사를 상징하고, 봉사를 위한 힘을 상징하며, 준비를 갖춘 자세를 상징한다.

6. 단정과 경건

고의는 제사장의 성례 집행 때의 단정과 경건을 상징한다.

참 고 문 헌

- 1) 이상근, 구약주해 출애굽기(대구 : 성동사, 1998), p.1.
- 2) 양숙희 · 이순애, "한국 기독교 성직자 예복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제3권(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89), p.126.
- 3)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한영해설성경(서울 : 한영성경협회, 1999), 출애굽기 28 : 43, p.126.
- 4) 뉴통슨 관주 주석 성경 편찬 위원회, 뉴통슨 관주 주석 성경(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7), p.82.
- 5) 정장복, 예배학 개론(서울 : 종로서적, 1989), p.36.
- 6)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레위기 16 : 1-34, pp.170-172.
- 7) C. W. 슬래밍, 김병희 · 장세학 옮김, 제사장 의복(서울 : 전도출판사, 1992), pp.9-10, p.16.
- 8)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출애굽기 28 : 1, p.124, 신명기 21 : 5, p.294, 역대상 15 : 2, p.633. ; 임용섭, "제사장 나라에 관한 고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0), p.27.
- 9)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사무엘상

- 2 : 35, p.412.
- 10) Ibid., 사무엘상 7 : 6, 15-17, pp.417-418.
- 11) Ibid., 사무엘상 8 : 1, p.418.
- 12) Ibid., 사무엘상 8 : 3, p.418.
- 13) Ibid., 사무엘상 8 : 5, p.418.
- 14) 임용섭, op. cit., pp.28-29.
- 15)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에스겔 44 : 23, p.1223. ; 임용섭, op. cit., p.30.
- 16) 김경행, 출애굽기 II(서울 : 성서연구사, 1989), pp.213-214.
- 17) 강문호, 성막으로 성경을 말한다(서울 : 한국가능성개발원, 1999), p.214.
- 18)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출애굽기 28 : 1-43, pp.124-126.
- 19) 김경행, op. cit., p.226.
- 20)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출애굽기 28 : 15, 16, 21-30, pp.124-125.
- 21) Ibid., 출애굽기 28 : 17-21, pp.124-125.
- 22) Ibid., 출애굽기 28 : 28, p.125.
- 23) C. W. 슬래밍, 김병희 · 장세학 옮김, op. cit., p.10.
- 24)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민수기 10 : 14-28, p.212.
- 25) Ibid., 출애굽기 28 : 15, p.124.
- 26) Ibid., 출애굽기 28 : 29, p.125.
- 27) Ibid., 출애굽기 28 : 28, p.125.
- 28) Ibid., 출애굽기 28 : 30, p.125.
- 29) Ibid., 출애굽기 28 : 16, p.124.
- 30) Ibid., 잠언 16 : 33, p.929.
- 31) Ibid., 에스라 2 : 61-63, p.713.
- 32) Ibid., 민수기 27 : 21, p.243.
- 33) 김경행, op. cit., pp.215-220.
- 34)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출애굽기 28 : 2, 6-14, p.124.
- 35) Ibid., 출애굽기 28 : 38, p.125.
- 36) Ibid., 욥기 26 : 11, p.786, 시편 102 : 26-27, p.876, 이사야 51 : 6, p.1031.
- 37) Ibid., 시편 133 : 2-3, pp.900-901.
- 38) Ibid., 잠언 16 : 33, p.929.
- 39) 오춘자, "성서를 배경으로 한 히브리(Hebrew) 복장의 상징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서울 : 1979), pp.37-38.
- 40)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출애굽기 28 : 31-35, p.125.
- 41) A. Buruma, Fashions of the Past(London : Collins and Brown, 1999), p.20.
- 42)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레위기 16 : 3-4, pp.170-171.

- 43) Ibid., 레위기 6 : 10, p.153.
- 44) Ibid., 사무엘상 2 : 18, pp.410-411.
- 45) Ibid., 출애굽기 28 : 39, p.125.
- 46) 오춘자, op. cit., pp.2-3.
- 47)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출애굽기 28 : 36-38, 40-41, p.125.
- 48) 류형기, 성서주해 vol. I.(서울 : 감리회총신원, 1965), p.322.
- 49) 최현역, Pulpit Commentary 출애굽기 하(서울 : 보문출판사, 1977), p.589.
- 50) 최규복, "구약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의 제복에 관한 연구", 의상학연구, 제4집(서울 : 성균관대학교 가정대학 의상학과, 1977), p.172.
- 51) 민동원, "히브리 제사장 복식의 상징성 연구", 신구전문대학 논문집, 제12집(성남 : 신구전문대학, 1993), p.423.
- 52)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레위기 8 : 6-9, p.156.
- 53) Ibid., 출애굽기 28 : 8, p.124.
- 54) Ibid., 출애굽기 29 : 8-9, p.126. ; 오춘자, op. cit., p.39.
- 55)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출애굽기 28 : 42, p.125.
- 56) Ibid., 출애굽기 25 : 10-26 : 37, pp.120-122.
- 57) C. W. 슬레밍, op. cit., p.16, p.31, pp.66-71.
- 58) Ibid., 표지. ;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출애굽기 28 : 1-30, pp.124-125. ; A. Buruma, op. cit., p.20.
- 59) 강문호, op. cit., pp.237-238.
- 60) 히브리어의 서식을 따라
- 61) 김경행, op. cit., pp.215-220.
- 62) 강문호, op. cit., p.236.
- 63) C. W. 슬레밍, 김병희 · 장세학 옮김, op. cit., pp.9-10, p.16, p.31, pp.66-71.
- 64) 이상근, op. cit., pp.339-340.
- 65) 강문호, op. cit., pp.238-239.
- 66) Ibid., pp.232-233, pp.334-336.
- 67) Ibid., pp.232-233, pp.334-336. ; C. W. 슬레밍, 김병희 · 장세학 옮김, op. cit., pp.42-45.
- 68) Ibid., pp.227-232. ; 이상근, op. cit., pp.330-341.
- 69) C. W. 슬레밍, 김병희 · 장세학 옮김, op. cit., p.5, pp.9-11, pp.65-71.
- 70) 강문호, op. cit., p.227.
- 71) Ibid., pp.341-342.
- 72) Ibid., p.342.
- 73) 한영해설성경 편집위원회 권혁달 편, op. cit., 이사야 11 : 5, p.981.
- 74) Ibid., 누가복음 12 : 35, p.116.
- 75) Ibid., 시편 93 : 1, p.871, 65 : 6, p.847, 18 : 39, pp.814-815. ; 오춘자 · 박길순, "성서를 통해서 본 의복의 상징적 의미", 충남과학연구지, 제14권 제2호(대전 : 충남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1987), p.99.
- 76) 강문호, op. cit., p.239.
- 77) Ibid., p.226.
- 78) Ibid., p.343.